

사설

‘한반도의 봄’ 여는 동포돕기

불교계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은 참으로 밝다운 결심이라 하겠다. 당장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2천만 북한동포들을 위해 1천만 불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시급한 것이 연변을 비롯한 동북삼성(東北三省)의 교포들이다. 여행과 취업, 결혼과 유학을 받기로 사기 당한 집이 한 집 건너라는 보도가 있었다. 혹은 충격에 반신불수로 손발을 떨고 있고, 버터미에 집과 일터를 빼앗기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반도 잡을 뜻이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도적 견지에서만 아니라 그들 종교교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교두보 혹은 완충지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민심을 알고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없다. 파벌체제를 잡는 것이야 공권력에 촉구할 일이고, 당장 그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무너져버린 인심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인간의 협력이 당장 시급한 처방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운동본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동서의 화해 무드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도 한반도의 봄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통일도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풍문도 있고 북한과의 긴장과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보건대는 후자가 더욱 정직한 관찰인 듯하다. 그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식량위기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핵을 담보로 미국과의 협상에만 몰두했을 뿐, 남한정부는 철저히 배제해 왔다. 그래도 우리 정부와 시민들은 이념의 이름 아래 굶고 있는 한 핏줄 한 민족에게 쌀과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이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느” 삼무(三無)의 순수 자비행이

있지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질서와 부당한 트집이었다.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무상제공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심은 정세를 도의시한 정치외교적 실패로 지탄되기도 했다. 연세대에 모인 젊은 열기들의 철없는 이상주의가 부른 폭력예다, 무장공비 사건으로 남북한의 이념적 긴장은 전에 없이 강화되고 심화되어 일촉즉발의 위기감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종교인들이 현실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자비를 뜻생명 증생들에게 조건없이 베풀어야 함을 강조했고 실천해왔다. 우리는 현실의 논리도 존중해야지만 영원의 이상도 또한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 이 둘은 수레의 두 바퀴마냥 하나도 결여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중도(中道)와 대승 중관(中觀)의 논리는 한 손으로 부정한 것을 다른 손이 긍정하는 쌍차쌍조(雙道雙照)의 도리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불신과 대립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 안정과 질서, 그리고 평화적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너무나 달라진 문화와 사상, 체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히 노력하고 집합의 실질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법인업장든 부대끼면서 풀어야 한다. 서로의 오해와 아픔을 듣고 느끼다 보면 문제는 해소되며 그때 진정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일체감이 기약될 수 있다.

이번 발족을 계기로 그같은 불국토에의 염원이 아시아 전역에 사무쳐도록 하자. 벌써 29개의 신행단체가 수회동참할 뜻을 보였고 앞으로 더욱 큰 힘으로 자라나리라 한다. 그 원력이 모여 대해(大海)를 이루면 부처님의 인도적 원음(圓音)과 법(法)의 바위가 한반도를 비롯한 사시방(四維十方)에 메아리칠 것이다.

열린마당

직장법회 대표자연수 현장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회가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지난 7~8일 이틀 동안 경기도화성 신홍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17개 직장·직능법회 대표자 22명이 참가했으며, 정락스님(옹주사주지)과 박광서교수(서강

대, 우리는선우 이사장)의 특강과 직장·직능법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좌담회,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주제의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 및 특강 요지를 간추린다. (편집자 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회가 지난 7~8일 경기도 화성 신홍사에서 개최됐다.

부처님시대, 아라한불교시대, 보살불교시대를 거쳐 현대사회의 불교는 ‘우리불교시대’라 부를 수 있다. 보살·민중·대중불교는 자기와 타인을 이원화한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나를 제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보살이 되어야 하고, 우리불교시대를 선언하고 살아

경 열반경 등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성불의 가능성을 설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목적이라는 말보다 원력 또는 발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사후생명이 불자들의 발원이 되어야 한다. 또 불자들의 올바른 생활자세는 육바라밀의 실천에 달려있다. 육바라밀이 불자의 생활지침이 되어야 한다.

정락스님 ‘포교하는 불자가 되자’

“지금은 우리불교시대”... 자성의식 절실

가야 할 때이다. 어느 종교든지 다음의 세가지가 종교를 이루는 기본이다. 불교는 무엇을 믿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가. 불교는 삼보를 믿는다. 이때 믿음은 기독교의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는 다르다.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의해서 스스로가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다. 원효는 일찍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표현했다. 금강

특강요지

이제 우리는 어떤 불자나를 되새겨볼 때이다. 불국토도, 즉 사회의 불교화는 불교의 사회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인간은 더 이상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기적 행위나 이웃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서서히 자기에게 그 화가 돌아온다는 공명증생의 의식전환만이 증생고와 사회고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절절한 자각이 필요하다. ‘보현행원록’에서도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

중단행정지원 필요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주제 토론회에서는 조직화에서부터 법회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안에 대한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단의 행정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의 활용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각종 공식 비공식모임을 통해 중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불자에 대한 파악과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직장법회의 경우, 소속직장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 확산을 이뤄 미가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BS불교연구회의 경우, 불교관계 문제를 발생하면 참여역할을 안수, 사내에서도 매우 인심이 높다는 점이 법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원들에게 ‘왜 법회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과 흥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꼽았다. 신앙체험담 소개, 소규모 동우회의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포교원에서 동종업종, 지역모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전달됐다. 또 관공상제의 불교식 의식의 제정과 보급, 상호의 활성화가 곧바로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을 통해 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출·재가역할 분담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이같은 의견을 ‘포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 성타스님은 또 “출가 2부중반 불교의 구성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출가자는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수행자상을 보여줘야 하고, 재가자에게는 포교와 신행단체 활성화라는 몫이 주어졌다”며 출가 재가 역할분담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종단 역사상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참석율이 저조해 법회 운영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직장·직능법회 대표자 연수의 애초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평. 대구교도소불교회 이무양회장은 “회원의 참석율이 저조해 이번 연수를 통해 노력을 배우려 했는데 아쉬웠다”며 포교원의 치밀하지 못한 연수회 준비를 비판했다.

법사초청 어려움

“법사초청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공통적인 불만이었다. 이는 포교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포교원은 법회의 성격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법사를 확보, 각 법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사 요청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사비가 1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법사초청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울산 삼성정불자회회의 경우, 법사비는 말 그대로 거미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역사찰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회 운영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박광서교수 ‘미래사회와 불교’

“사회로 열린 불사” 지향 공업중생 실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자들의 신앙행태와 불사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적 가치관을 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각종 교육봉사, 복지봉사에는 너무도 인색하여 이리다가는 불교가 사찰내에 갇혀서 무기력한 종교, 반시대적 종교로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회로 열린 불사’에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목어

영화 ‘싸운드 오브 뮤직’의 뒷부분은 손에 땀을 쥐게한다. 관객들은 대령의 가족들이 국경을 무사히 넘기를 바라면서 숨을 죽인다. 김경호씨(62)와 최현실씨(57) 일가 17인의 44일 탈북드라마는 영화 이상으로 극적이었다. 10년 같은 10분을 보냈고, 체포에 대비하여 극악을 갖고 다닐 정도로 그들은 탈북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현실씨가 김포공항에서 말한 귀순소감이다.

탈북드라마 그 이후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였을 때 꿈과 생기가 돌아야 한다고 김포시 수용소의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편했다. 밖에 나오

탈북드라마 그 이후

니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품성과 생활방식 차이로 적응이 잘 안됐다. 탈북귀순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말이다. 통일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가

우리의 체제를 이해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때마침 교계에서는 지난 12일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북한주민들기도 해야겠지만 귀순자에게도 관심을 갖자. 보도에 의하면 3천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고 1천2백여명이 우리 공관에 망명을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종교인과 지식인, 국제정세를 넓고 바르게 볼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지를 모아 민족의 내일을 슬기롭게 열어간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텐데...

새벽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학우를 형제처럼

같이 배우는 사상을 공경하되 형제처럼 생각하고, 걸으론은 몸과 입의 허물을 단정히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단속하라 (북반니참경)

법연사  
주지 현호  
TEL. (02) 733-5322

현대만평

사찰·도지 주지스님 명의

잘못된 농지법 때문에...

탈북드라마 그 이후

꿈에도 그리던 서울. 그들에게 있어 서울은 극락일 수 있다.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얼마나 좋다”고 외쳤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였을 때 꿈과 생기가 돌아야 한다고 김포시 수용소의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편했다. 밖에 나오

뽕사골 품안 유황 온천의 명성

지리산 포시즌 콘도 도고 포시즌

동시 분양

정상분양가 (30일 기준)

17평형	1,100만원	23평형	1,500만원
------	---------	------	---------

특별분양가(15일 기준 - 도고 2차)

평형	특별분양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17	645만원	165만원	400,000 × 12개월
25	945만원	225만원	600,000 × 12개월

· 상기 금액은 회원제 기준임

온라인 구좌안내 예금주: (주)가원레저

농협	366-17-001354	국민	839-25-0009-357
제일	436-20-074674	외환	211-22-01205-8

· 조기마감 될 수 있으나 확인후 입금바랍니다

회원사업부 : (02) 3452-8998(代)  
직통: (02) 562-3225 범명 도인

가속과 함께 자연과 함께 (株) 伽元佳宅 (株) 伽元 레저 愛業 (주) 와이·케이 물산